

“심없는 관음수행으로 마음자리 찾자”

삼광사, 신도회 창립 40주년 기념 대법회 열어

부산 35만 신도의 천태종 삼광사(주지 화산)는 신도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산사음악회와 기념대법회를 열고, 부산시민과 40주년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10월 31일 오후 6시 30분부터 삼광사 마당 특설무대에서 열린 산사음악회는 송창식, 설운도, 김수희, 박강성, 박현빈, 박상철, 웅산, 신형원 등 인기 가수들이 대거 출연해 3만여 부산시민 및 불자들이 흥겨운 전야제를 연출했다.

이어 11월 1일 오전 11시 지관전에서 신도회 창립 40주년 기념 대법회를 봉행했다.

‘부산경제 살리기 및 G20 정상회의 유치기원’을 슬로건으로 한 이날 법회에는 천태종 도용 종정스님, 총무원장 정산 스님, 허남시 부산광역시 시장, 설동근 부산불교연합신도회장(부산시 교육감), 허원제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법하게 진행했다.

도용 스님은 “관음수행을 통해 자



11월 1일 부산 삼광사 신도회 창립 40주년 기념대법회에는 1만여 사부대중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신의 마음자리를 찾으면 부처님의 갖가지 지혜가 다 보인어, 세월을 잘 지켜 멀리 내다보고 살 줄 아는 불자가 되라”는 법어를 내렸다.

총무원장 정산 스님은 치사에서 “오늘 40주년을 맞이한 삼광사는 이

미 부처님의 도량으로, 앞으로 이어질 40년이 무척 기대된다”며 “부산 시민과 함께 국가와 세계의 모든 이들에게 자성을 밝히는 광명이 되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앞서 주지 화산 스님은 봉행사에

서 “불자들의 원력으로 이루어낸 삼광사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삼월원각 대조사께서 천태종을 증창하며 세운 증생구제라는 대원력에 힘을 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만인을 부처님 품으로 인도하는 길잡이로서 오탁약세에 방황하는 무명증생들의 귀의처가 되도록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불교연합회회장 정여 스님(범어사 주지)은 “관음기도로 이어온 40년 역사가 백 년, 천 년을 이어가는 등불이 되길 바란다”고 축하했으며, 허남시 부산시장도 “삼광사가 불교의 현대화, 세계화, 대중화를 이끄는 대가람으로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는 축사를 했다.

또, 지난 40년 간 삼광사 발전에 기여한 허남시 부산시장에 감사패, 설동근 부산광역시교육감과 류연석 동구지회 부회장에 표창패, 조성래 사상지회장과 주광필자 전통유리연 구회장에 공로패를 각각 수여했다.

박지원 기자 hdbp@hanmail.net

‘고려 호국불교의 진수’ 백고좌대법회

올해 2회 맞아 10월 31일 부산 벡스코서 봉행

750년 만에 부활한 고려시대 호국불교의 진수였던 백고좌법회가 올해로 2회째를 맞았다.

백고좌법회 봉행위원회 주최, 성재문화원(원장 이강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0월 31일 오후 2시부터 부산 벡스코에서 봉행했다.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을 시작으로 100명의 스님이 단상에 오르고, 100명의 보살이 등·꽃공양을 올렸다. 이어 ‘산사의 아픔을 열다’ 영상과 전통무용, 이강원 성재문화원장의 개회선언, 삼귀의례, 반야심경, 부산시불교연합회 상임부회장 정각 스님의 인사말, 조계종 원로회의장 종산 대종사의 격려사, 허남시 부산시장 축사, <인왕반야경> ‘호국품’ 낭독, 설동근 부산시교육감 축사, 석가모니불 정근, 김동주(주)하



왼쪽부터 허남시 부산시장, 이강원 성재문화원장,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인 축제로 계속. 발전시켜 우리나라 대표 불교행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부 음악회에는 인드라 스님, 시명 스님, 심진 스님 등이 출연해 백고좌법회의 매미를 아름답게 장식했다.

이날 법회에는 대구 동화사와 부산 해운정사 조실 진제 스님,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허남시 부산시장, 국회 불교모임 정각회 부회장 안홍준 의원 등 사부대중 1만500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백고좌법회는 신라 진평왕 35년인 613년 7월경, 황룡사에서 원광법사를 초청해 설법을 들은 것을 시초로 고려 원종 이후 원나라의 억울정책으로 맥이 끊어졌던 것을, 지난해 성재문화원에서 처음 재현해 이번엔 제2회를 맞았다.

박지원 기자

개원 1주년 특별한 법석

길상사 삼계선원

도심포교 중심도량 김해 길상사 삼계선원(주지 해수)이 오는 11월 17일 개원 1주년을 맞아 3가지 특별한 법석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오전 10시 개원기념법회에는 특별 법문으로 법어사 전 주지 대성 스님이 단상에 오른다.

이어 18~22일 5일간 매일 7시 30분부터 9시까지 <육조단경> 초청 특강이 신설된다. 법사는 그동안 스님들만을 가르쳐 온 송광사 전 강주현 전 스님을 초청해, 재가불자로는 처음 강의를 들을 수 있다. 강의료 및 고재는 일체 무료로, 선착순 100명에 한한다. 뿐만 아니라 경내에서 열리는 각종현 수목화 특별전에서는 수목화 작품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

한편, 길상사는 11월 25일(초하루)부터 1000일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천일기도에 들어간다.

해수 스님은 “길상사 삼계선원은 엄숙한 수행공간이면서, 아른들의 놀이터”라고 말했다. (055)333-8202

박지원 기자

아미타대불·인연의손 제막

홍법사 개산 6주년 기념법회 성료

11월 1일 홍법사주지 심산은 개산 6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봉행했다.

오전 10시 불공을 시작으로 오전 11시 대웅보전에서 무비 스님(前 조계종 승가대학원장, 조계종 교육원장 역임)을 초청법사로 개산 6주년 기념법회, 오후 12시

약사여래불 점안식 및 아미타대불 인연의손 제막식, 오후 8시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 등을 차례로 마련했다. 경내 잔디마당에서는 이경순 영광문화예술원 관장의 연꽃사진 초대전이 열려 관람객의 마음을 온통 가을빛으로 물들였다. 한편, 경내 곳곳에서 어린이법회 천진불들의 난타, 가야금 연주 등의 공연이 펼쳐져 큰 감명을 받았다. 더불어 홍법사 스님들이 손수 요리한 먹물거리장터도 흥겨운 축제의 열기가 한층 고조됐다.

이날 점안식을 가진 약사여래불은 대웅보전 앞 건물 외벽 안에 조성하고, 유리관 밖으로 폭포가 흘러내리는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다. 특히, 아미타대불 인연의손은 2010년 낙성 예정인 대웅보전의 옥상에 조성 중인 아미타대불의 양상으로, 홍법사 신도 이외의 불자들과 언론 등에 처음으로 위용을 드러냈다. 주지 심산 스님은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아미타대불의 손을 잡고 그 인연으로 더욱 신심을 내걸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부산 홍법사는 11월 1일 개산 6주년을 기념해 아미타대불 인연의손 등을 제막했다.

이날 점안식을 가진 약사여래불은 대웅보전 앞 건물 외벽 안에 조성하고, 유리관 밖으로 폭포가 흘러내리는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다.

특히, 아미타대불 인연의손은 2010년 낙성 예정인 대웅보전의 옥상에 조성 중인 아미타대불의 양상으로, 홍법사 신도 이외의 불자들과 언론 등에 처음으로 위용을 드러냈다.

주지 심산 스님은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아미타대불의 손을 잡고 그 인연으로 더욱 신심을 내걸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박지원 기자

‘참나를 찾아서’ 깨달음 향한 72시간 구법여행

해운정사, 제2회 3박4일 참선철야 용맹정진

“세상과 청산 중 어느 것이 좋으냐” 진제 스님의 화두와 함께 600여 사부대중이 한자리에 모여 72시간 동안 치열한 구법여행을 떠났다. 아니, 깨달음을 얻기 위해 3박 4일간 잠 한숨 자지 않은 채 가부좌를 틀었다.

해운정사(조실 진제)는 11월 2~5일까지 3박4일간 참선철야용맹정진법회를 개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법회에는 비구·비구니 스님 80명, 남·녀 재가불자 520명 등 총 600명이 참가했다. 이중 70% 정도는 지난 1회에 이어 두 번째로 동참했고,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신청정수 후 취소한 이들과 합치면 800여 명이 웃돌았을 것이라고 한다. 해운정사에서의 용맹정진 일과는 엄격했다. 첫날 오전 11시 입제식과



엄격한 일과에 따라 용맹정진하고 있는 수행자들.

점심공양을 마친 후 오후 2시 10분부터 5시까지 입선, 저녁공양 후 오후 5시 10분부터 익일 새벽 3시까지 예불 및 입선 등의 순으로 예불, 공양 시간, 매 시간 10여 분의 포행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오로지 입선에 든다. 사흘 지난해만 해도 세속의 삶에 익숙한 불자들은 이것저것 불내소리를 해댔다. 하지만 올해에는 1회 규정형

자들이 대부분이어서 엄숙한 가운데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특히, 520명의 재가불자 중 15%인 80명은 남성불자로, ‘거사선불교’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예년에 비해 3~4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수행분위기를 보다 강건하게 다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오는 2010년 음력 11월 초하루에도 어김없이 해운정사 3박4일 참선철야용맹정진이 열릴 예정이다. 7월경 참가접수를 받고, 선착순 700명에 한할 예정이다. 3박4일이라는 기간이 부담스럽다면 해운정사에서 매주 토요일 주말동안 상설 운영 중인 토요용맹정진선원에서 기본기를 익혀두는 것도 좋을 듯하다.

박지원 기자

희망세상 나누기

생명나눔 걷기대회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부장 원범)는 10월 31일 초음 어린이대공원 순환산책로 일원에서 ‘희망 세상 만들기 생명나눔 걷기대회’를 개최했다.

오후 1시부터 부산시 학생교육문화회관 광장에서 식선공연 및 원범 스님의 대회사, 내빈소개 및 축사, 개막선 등 기념행사를 갖고, 오후 2시 준비체조 후 약 2시간 여 공식행사인 걷기대회를 이어갔다. 오후 4시 축하공연과 경품추첨 등 회장의 축하행사를 끝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이번 걷기대회에는 부산 시민과 환우 및 가족, 장기기증·후원회원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쾌적한 자연 속에서 생명 나눔의 소중함과 더불어 사는 희망세상을 함께 고감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박지원 기자

기사 넘쳐 이번 주 부루나조자는 쉽다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슨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받았습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 것이며, 죽을병에 있어도 나침권의 역란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주고 어리석은 마음을 여겨게 된다.

수월 관음도

불자가정에 꼭 있어야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무진이며,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니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이나 잘 응할수 있다.」(관세음보살공명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증생들의 근심, 격정, 고통과, 액란을 소멸하고 세상은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리매김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문에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셨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문에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화화백에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년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판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원이 있다. 전화로 신청 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규격 : 가로 67cm×세로 85cm 가격195,000원 문의전화 :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능)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 불공 마치고 보급

경기가 너무없어, 장사가 너무안되, 문을닫아 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증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폭도 많고 불경기도도 흉황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장사하는 증생의 지혜도 부족하지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잡귀의 방해로 오는손님의 마음을 흔들며 문앞에서 방향하게 만들고, 일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조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잡귀를 몰려지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박물관에서 유물로 볼수 있다. 일본의 경

우 식당과 점포, 각종 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수있다. 불광사에서 장사흥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불공을 마친 금강삼고저를 사업장 안에 걸어 놓으면 금리로 제재할 풀위도 없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85,000원(신용카드 분할가능) 문의 (02)741-4488 (사할스님 20%할인) 농협: 032-12-193445 이상하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선정, 기든, 의형질, 보살상, 부동신중개소, 이미용실, 유복향,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위험, PC방, 당구장, 사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합관,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분양사무소,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미용실, 방앗간, 공장, 주유소, 산재사고 위험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사업 성공의 선물로도 품격!

자동차용호신불

세상에서 평생 아름다운 선물!

자동차를 타고가다보면 운전석위에 영주를 고정시켜 걸고 다니는 차를 종종 보게된다. 영주는 부처님께 예물을 드리는 공양법구로 차에 고정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부처님 법구중에는 다니면서 액운과 화를 당하지 않도록 하는 호신불이 있다. 우리나라 호신불은 신라시대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과 귀족들이 지니고 다녔다. 신라가 통일전쟁을 벌일때에 화랑장수와 화랑장수의 말에 왕이 직접 전장에서 죽지말고 승리하고 오라는 뜻에서 목각으로 만든 반가사유상호신불을 하사 했으며 호신불을 가지고 전장에 나간 장수와 말은 죽지 않고 승리하고 왔다고 한다. 하루에도 교통사고로 수백명씩

신차출고시 사고예방의 필수품! 운전하는 가족친지에게 사고예방의 선물

사망 또는 중경상으로 인한남이 없는 오늘도 안녕을 지키는 호신불을 운전하는 아내와 자녀에게, 남편과 친지에게 사고예방과 생명안전을 기원하는 선물을 한다면 평생 아름다운 선물이 될것입니다. 호신불 뒷면에는 운전하고 가는곳마다 계획한 일들이 성공되게 비방의 “반장”을 날렸고 생명보호와 사고 예방 축원불공을 마친 금니 호신불을 운전석 위 툴팁러에 걸고 다니면 안전하고 품위가 있다. 고급케이스에 선물로 도 품격이 있으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가격 45,000원. 신청전화 : (02)741-4488 농협 : 032-12-193445 이상하 (사할스님 30%할인)



자동차사고 예방 축원불공미쳐!